

진도군, 만감류 영농현장 컨설팅 추진

농촌진흥청 전문기술위원 3명 초빙 진행

영농현장 애로기술·분야별 전문 컨설팅 실시



진도군이 황금봉, 레드향 등 만감류 재배농가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농가의 영농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련분야 전문가를 구성해 진단·처방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전문기술위원 3명을 초빙해 분야별 컨설팅으로 진행됐다.

컨설팅의 주요내용은 ▲만감류의 핵심 재배기술 ▲열과 경감 대책 ▲도양 관리기술 ▲병해충 방제 대책 해결방안 등 각 전문기술위원의 심도 있는 이론 강의와 재배지 현장을 방문, 농가들의 질의응답과 현장 진단을 병행해 농가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분야별 전문기술위원으로 구성된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통해 농가의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여러 컨설팅을 통해 작물 재배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레드향과 한라봉 등 30여 농가가 만감류 6.1ha를 재배하고 있으며, 사업비 4억 8천만원에 확보해 2023년에는 신품종 만감류를 보급하는 등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진도=조상용기자

강진군 육아수당 실거주 확인조사 실시

강진군은 지난 7일부터 24일까지 강진군 육아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실거주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군과 읍·면 담당자, 마을이장이 협력해 해당 가구에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조사를 통해 강진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육아수당을 부정수급 받은 대상자에 대해 사실확인을 거쳐 환수조치 했다.

임준형 군민행복과장은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조건 홍보와 실거주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방

문 조사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진군 육아수당의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의 친권자로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강진군에 거주해야 하며, 전입한 아동일 경우 전입일을 기준으로 친권자의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보호자가 관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아동이 타 지역 보육서비스 및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지급이 중지되며 특별한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강진=김영일기자



장흥군,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운영

장흥군은 이달 17일부터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 장애인 단체 및 시설 8개소를 대상으로 한 이번 프로그램은 평소 여행 기회가 많지 않았던 장애인에게 역사 문화 및 자연을 탐방하고 타인과 소통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 마련됐다.

2017년부터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이 프로그램은 장애 유형별로 골고루 혜택을 보고자 각 장애인단체와 복지시설에 배

분하여 진행된다. 참여대상은 등록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활동 보조인 등이다.

장흥군은 221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사회 참여에 제약이 늘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이번 프로그램은 타인과 소통하는 데 자신감을 심어주는 등 특별한 치유와 위안을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흥=김도영기자

완도군, 안전한국훈련 실시 '재난 대응 능력 강화'

토론에 이어 해양 선박 사고 가정현장 훈련 실시



완도군은 지난 11월 14일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토론 훈련에 이어 24일 완도항 제2부두에서 현장 훈련을 실시했다. 현장 훈련에는 강성운 완도부군수,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 정연우 제8539부대 2대대장, 17개 유관 기관·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군외중학교, 신지중학교 교사와 학생 70여

명을 비롯한 250여 명이 훈련을 참관했다. 훈련은 완도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 선박 화재 사고를 가정해 유관 기관별 유기적 대응 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진행됐다. 훈련에는 경비함 7척, 고속 단정 2척, 해경 헬기 1대, 모의선 1척, 구조선 1척, 구급차, 방

역차 등이 동원돼 실제 상황을 방불케 했다.

훈련은 재난 안전 통신망을 활용한 사고 접수 및 초기 상황 전파, 대응, 구조·응급조치, 수습·복구 등 재난 시 대응 과정에 따라 꼼꼼하게 진행됐다.

먼저 완도군 재난안전대책 본부장(군수 신우철)의 재난 메시지 전달을 통해 최초 화재 신고부터 현장 출동까지 신속한 초동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어 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응급 의료소설치 등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체계적인 지원라인을 구축하고, 구조 및 화재 진압, 사상자 이송 조치, 수습 및 복구를 위해 민·관·군·경의 협업 시스템을 가동했다.

한편 군외중·신지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심폐 소생술 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의 안전 의식을 높였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훈련을 통해 유관 기관·단체 간 재난 대응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현장 지휘 및 통제 매뉴얼을 재점검하겠다"면서 "어떤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차질 없이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안전한 완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해남군-유니세프 한국위 아동친화도시 조성 '맞손'

해남군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동친화도시는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 올 상반기까지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로 전국 74개 지자체가 인증을 받았다.

해남군은 2024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

로 조례 제정과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친화도 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해남군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한 아동의 권리의 실현과 증진을 위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통합적 아동정책을 추진하는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를 조성에 나기로 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